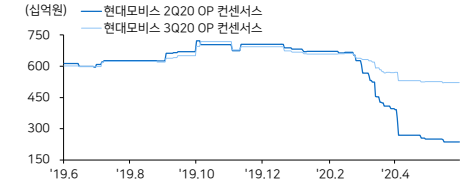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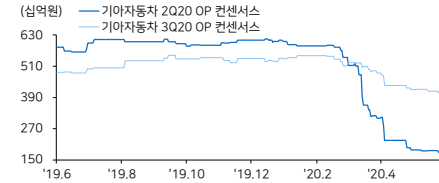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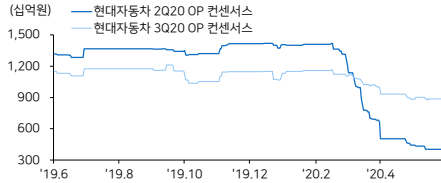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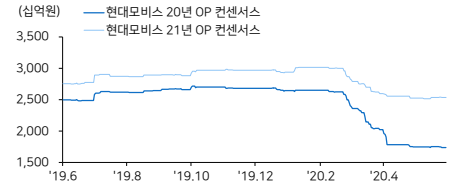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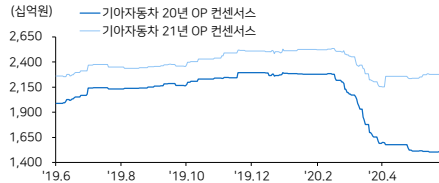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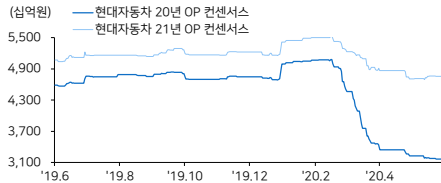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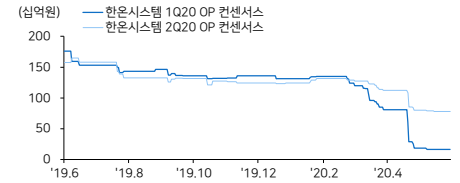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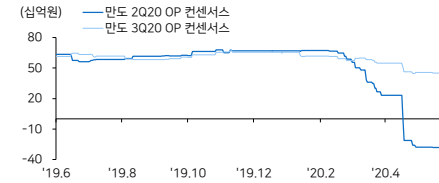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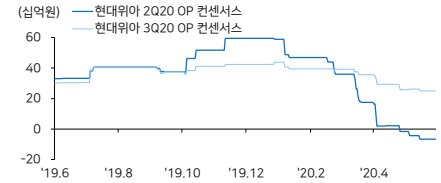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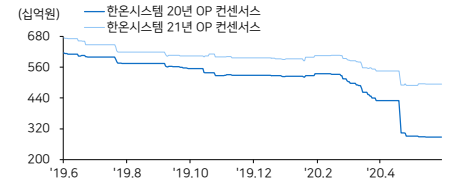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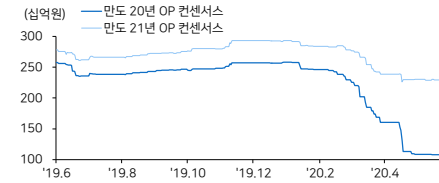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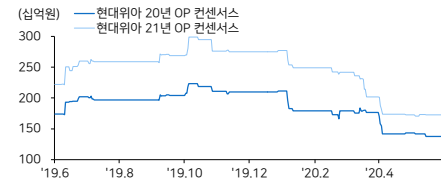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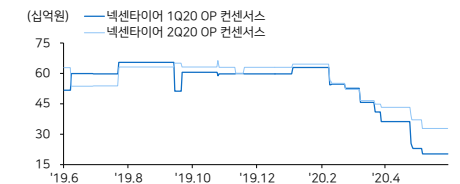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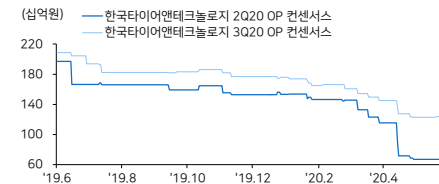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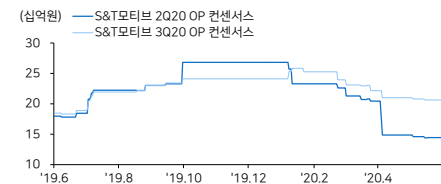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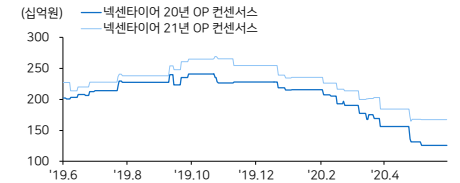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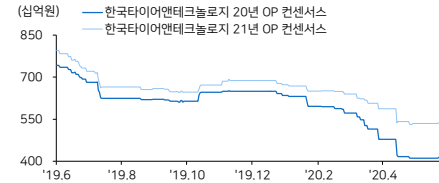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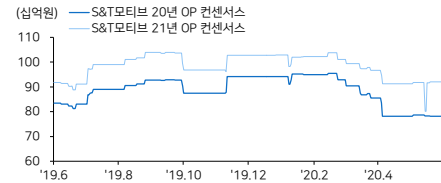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배터리 연합' 우군 얻은 현대그룹...2025년 EV 100만대 생산 (매일경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EV를 전 세계에서 10만대 넘게 판매. 현대·기아차는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통해 25년 이후에는 100만대가 넘는 EV를 생산·판매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 <https://bit.ly/2YY1xv4>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에 마이클 클 선임...첫 외국인 CEO (아시아경제)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에 마이클 클을 기아차 미국법인이자 새롬에 선임됨. 클 선임 본부장은 토요타와 포드의 유럽법인을 거쳐 기아차 유럽권역본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인물. <https://bit.ly/2BxulbU>

한국타이어, 美 공장 증축 카드 '만지락'... '글로벌 1억 생산' 속도 (더그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미국 테네시 공장의 2단계 증성에 착수.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가 투자에 교호를 댈지는 분위기. <https://bit.ly/3756FvP>

벤츠·BMW,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1년 만에 '마침표' (IT조선)

벤츠와 BMW가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을 선언한지 1년 만에 파트너십 종료 선언. 공유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이 막대한 예산에 진척도 더할 뿐 아니라 양사의 전문가, 협력사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파트너십 종료 배경. <https://bit.ly/3eqSTvt>

현대차, 인도서 온라인 주문 순항... SUV가 절반 이상 (아시아타임즈)

현대차의 온라인 자동차 주문 서비스인 '클릭 투 바이'가 인도에서 순항하고 있음. 인도 현지매체에 따르면 '클릭 투 바이'는 출시 2개월 만에 자동차 예약주문 수는 약 1800건을 달성했고, 이중 60% 가까이가 SUV. <https://bit.ly/2zTLmg4>

그랜저, 국산자동차 브랜드평판 6월 ... 1위 (비온드포스트)

2020년 6월 국산자동차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그랜저, 2위 아반떼, 3위 G80 순으로 분석됨. 한국기업평판연 구소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국산자동차 브랜드 빅데이터 18,626,604개를 분석. <https://bit.ly/37U6q6M>

출퇴근 혼잡구간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 (경기신문)

운전자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경기도가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을 추진. <https://bit.ly/3hQP5vP>

美 수소차도 질주 체비...니콜라 내달 공장 착공 (서울경제)

상장주식 시가총액 규모에서 포드를 위협하는 수소차 업체 니콜라가 다음달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을 시작. 이어 현재 니콜라가 자사 차량은 물론 경쟁사 차량도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700개를 미국 전역에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 <https://bit.ly/37Rlg3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